

이제는 교육의 판을 바꿀 때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자살률 세계 1위와 합계출산율 OECD 끌찌를 탈피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출산율 끌찌와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현상에는 사회경제적 원인들이 있지만 인구와 생명에 관한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와 교육현장에 등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실물경제와 교육현장의 판을 훨들고 있다. 인공지능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교육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 오산이다. 인공지능이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는 없다. 마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마음은 오직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마음을 얻는 교육자가 생명존중의 씨앗을 뿌리고, 교육자의 마음을 얻는 교육기관이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이제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평균인재를 키우는 교육은 그 수명을 다했다. 평균인재는 키우는 교육은 학습자를 일렬종대로 세우

는 한계를 보였다. 학습자를 일렬종대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일렬횡대로 줄을 서서 저마다의 재능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판을 바꿀 때이다.

첨단과학 시대에 일터시민으로 일할 때 필요한 자질은 소명의식과 창의력이다.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정답을 요구하는 객관식 교육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동체 소명의식은 일터에서는 직업철학으로 작동하지만 가정공동체, 이웃공동체, 종교공동체, 교육공동체 등에서 활동할 때에도 필요한 삶의 철학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국제협업 리더십, 인간존중, 그리고 국가관이다. 학생들은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 만큼 이들이 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은 국가 간 경쟁과 상생의 두 수레바퀴를 굾려야 하는 인구가 국력이므로 출산율 제고가 필수적임을 깨우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므로 인간존중도 필수적이다.

장수시대에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준법의식과 여가활용 역량이다. 학창시절에 여가 활용 능력을 터득하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준법의식을 체화하고 여가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긴요하다.

교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교육이 필요하고 생명사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복합된 메타버스가 실생활의 영역에 들어온 만큼 철학이 있는 생명사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 보육은 보건복지부, 학생 교육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돌봄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분절된 교육 돌봄 커버넌스가 대체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학교교육의 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판을 바꾸어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출처: 2021년 12월 8일 파이낸셜 뉴스 fn 광장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중앙회장' 권옥자(權玉子 복야공파 36世)

제13회 경찰유가족회 이사회 주재(主席)"

지난 12월 21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경찰유가족회' 중앙회장인 권옥자 족현(族賢)은 '정기이사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한강현대상가빌딩(동작구 현충로 153)에 경찰청 등으로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무실 개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에 있었던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 자리에서 권회장은 '지난번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비운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등록단체로 시작하고 경찰의 날이 10월 21일, 경우 회의 날이 11월 21일, 그리고 우리 경찰유가족의 날이 12월 21일 바로 오늘로 정한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계신 유령옥 명예회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바 그리고 여러분이 협조로 오늘까지 전진할 수 있었음을 매우 고맙고 은혜롭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유명예회장은 '경찰 유족 보상금의 문제는 요로



를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 어려운 여건 아래서 겨우 이루어낸 결실들이 내부의 문제로 얼룩진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하여 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력하나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어 권옥자 회장은 중앙회 문집인 <님은 먼곳에> 제8호를 발간하여서 몇 권을 직접 서명하여 주면서 대종회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였다.

권오철 기자

평창 대화석굴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문화연구소

평창군 대화에서 대화천을 건너면 땀띠물이 기다린다. 예전부터 물로 몸을 씻으면 땀띠가 끂끼이 나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가뭄이 심해도 수량이 일정하고, 수온은 항상 10℃를 유지한다. 여름철엔 손발이 시릴 정도로 차갑고, 겨울 철엔 따뜻하여 동네 빨래터로 유명하였다. 수질도 좋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땀띠공원으로 탈바꿈하여 휴식 장소가 되었고, 이곳에서 매년 평창더위사냥 축제가 7월말부터 8월초에 열린다.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동굴 탐험이다. 광천선굴(廣川仙窟)로 알려진 굴의 길이 600m 정도, 지질연대는 약 4억년 내외, 동굴 안의 온도는 늘 14℃ 정도다.

동굴은 예전부터 대화지역의 명소였다. 조선시대 하목(許穆, 1595~1682)은 이곳을 직접 답사하고 『적주기』에 남겼다.

대화역 북쪽에서 석굴을 구경하였다. 큰 헷불을 앞뒤에서 연이어 들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험준한 구멍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힌 데가 없다. 동북쪽으로 수십 보를 가면 굴이 점점 높아져서 손으로 잡고 몸을 붙이고서야 오를 수 있다. 깊이 들어가도 끝이 없고, 시냇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와 둘 아래로 세차게 흐르는데 물소리가 요란하다. 물은 기괴한 모양이 많다. 어떤 것은 꿈틀대는 이루기 같아 빨로 낚아채는 것 같고 땃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것은 무쇠가 녹아 흐르다 얹겨 붙어 괴상한

모양이 된 것 같다.

이익상(李翊相, 1625~1691)은 강릉부사로 발령받아 가다가 '대화석굴(大和石窟)'이란 장편의 시를 짓는다. "대화역에 이르니, 석굴이 대화에 있는데, 모두 말하길 아름다워 볼만하며, 구불구불 그윽하며 깊다 하네. 태수는 고상한 흥취 일어, 잠깐 머무르라 수레에 명하고 늘어선 헷불로 밟아 버주니, 조그만 텔도 볼 수 있으며, 지축이 깨지는 듯하네.(하략)" 길게 헷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삼삼하다. 조심조심 바위를 잡고 가서 다량이 녹처럼 생긴 곳에 도착했다. 앞에서 복지고 통소 불며 가게 했으니 흥을 돋우기 위함보다는 악귀를 쫓고 두려움을 쫓기 위함인 것 같다. 굴이 형성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은 당시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이세구(李世龜, 1646~1700)는 '동유록'에 동굴 체험기를 남겨놓았다. 전부에서 청심대를 거쳐 모릿재를 넘었다. 남쪽으로 향하다가 대화천을 건너 수백 보를 걸어가니 바위 밑에 굴이 보인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⑨



권길현 편집위원장

〈봉곡집〉은 조선 후기 학자 병곡(屏谷) 권구(權渠, 1672~1749, 태사공 27세) 공의 시문집으로, 원집 목판본 10권 5책과 속집 목판본 4권 2책으로 전체 14권 7책이다.

공은 자가 방숙(方叔)이며, 병곡(屏谷)은 호이다. 부친은 선교랑 권정(權澄, 1636~1697)이며, 모친은 풍산류씨(豐山柳氏)로 현감 류원지(柳元之, 1598~1674)의 딸이다.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문인으로, 일찍이 과거를 단념하고 유학의 전통을 지키면서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전념하였다. 공이 살던 향리 안동 족적동(足積洞)에서 사창(社會)을 열어 흉년에 빈민들을 구제하였으며, 향약(鄉約)을 실시하여 고을에 미풍양속을 일으켰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 1695~1728)의 난으로 영남에 파견된 영남안무사(嶺南按撫使) 박사수(朴師洙, 1686~1739)가 공이 적당(賊黨)에 가담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공을 서울로 압송하였으나 공의 인품에 감동된 영조(英祖)의 특지(特旨)로 공은 곧 석방되었다.

공은 경학(經學)·예설(禮說)·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기설(理氣說)은 퇴계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 외 천문·역수(曆數)·역학(易學)·사기(史記) 등에도 조예가 깊어 〈경의취정록(經義就正錄)〉·〈도역쇄의(讀易瑣義)〉·〈기행주해(璣行註解)〉·〈여사휘찬의의(麗史彙纂疑義)〉 등이 문집에 전한다.

또한 한글로 지은 〈생산유곡(屏山六曲)〉과 〈내정편(內政篇)〉이 있다. 〈생산유곡〉은 평시조(平時調)이자 연시조(聯詩調)이다. 이 작품은 자연을 긍정적인 곳으로, 속세를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하여 속세와 단절된 자연 속의 삶을 이상적이라 노래한 것이다. 〈내정편〉은 공이 장녀에게 지어준 것으로 경순(敬順), 치산(治產),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출납(出納), 절용(節用), 저축(儲蓄), 장치(藏置), 봉쇄(封鎖), 의복음식(衣服飲食), 어노비(御奴婢), 과역(課役) 등 부녀자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일 12가지를 한글로 자세히 풀어 지은 것이다.

공은 별세 후 110년 뒤 철종 10년[1859]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묘갈명(墓誌銘)은 성재(性齋) 하전(許傳, 1797~1886)이 지었다.

〈봉곡집〉은 외손자 류일춘(柳一春, 1724~1810)의 〈발문(跋文)〉과 장손자 권명우(權明佑, 1722~1795)의 〈가장(家狀)〉

등에 의하면 그 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공의 별세 후 셋째아들 권보(權輔, 1709~1778)와 장손자 권명우 등이 공의 유문(遺文)

을 수습하여 순서대로 편집하고

교정한 뒤 향장(郷長) 하용국(河龍國)과 문인 안민수(安敏修)의 도움으로 간행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경의취정록

을 수습하여

교정한

한글로

간행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

기록한

〈상기(詳記)〉를 얹었고, 1780년(정조 4)에 권명우가 이를 바탕으로 〈가장(家狀)〉을 짓고, 〈세계자손록(世家子孫錄)〉을 여기에 첨부하였다.

권보(權輔)는

공의

언행을